우라반다이의 식생천이

1888 년의 반다이산 대분화와 산체의 부분 붕괴로 황폐지가 된 우라반다이 지역에는 지금은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풍요로운 삼림은 식림과 ‘식생천이’라는 식물의 자연 회복 과정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식생천이의 과정은 ‘선구적인 종’의 출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들이 토양에 영양분을 주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돕게 되고, 주변 서식지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주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빨라져 태양광을 좋아하는 저목과 고목이 출현하고, 이후 너도밤나무 등의 더 강인한 나무가 출현하는 것입니다.